



진주교 시흥대학교구
흑석동성당
 평화의 모후 & 14동직 지구 대표 본당
 직능 시목 시범 본당

박규흠 베네딕토 지구장 신부님 안 로 벨 도 수녀님
 유인창 안사노 주임 신부님 이 마리앙드레 수녀님
 박상용 베드로 부주임 신부님
 노동준 안토니오 보좌 신부님 안 세라피카 수녀님(유치원)

성당 사무실 : 816-2961 평화의 쉼터(봉안시설) : 816-2919 명수유치원 : 816-2964 연령회 회장 : 010-6394-5014

□ 흑석동 울뜨레야

- * 일시 : 1월 21일(일) 교중미사 후 12시
- * 장소 : 교육관 201호
- * 문의 : 간사 박상권 베드로(010-5352-7859)
- 꾸르실리스따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성서40주간 종강 미사

- * 일시 : 화요일 1월 23일(화) 오전 10시 미사
수요일 1월 24일(수) 오후 7시 미사
- * 장소 : 흑석동성당 대성전

□ 설명절 차례미사(평화의 쉼터)

- * 일시 : 1월 26일(금)~2월 8일(목), 평일 오후 3시
- * 장소 : 흑석동성당 대성전
- 설명절(2월 10일, 토)을 맞이하여 평화의 쉼터 가족분들을 위한 '차례미사(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안치단별 미사 봉헌 날짜는 본당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등부 겨울 피정

- * 일시 : 2024년 1월 27일(토)~28일(일)
- * 장소 : 복자사랑 피정의 집(서울 성북동 소재)
- 겨울 피정 관계로 1월 28일(일) 10시 중고등부 학생미사는 봉헌되지 않습니다.

□ 해외원조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인 1월 28일은 연중 제4주일이자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초 봉헌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 봉헌 축일에 1년 동안 성당과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한꺼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미사 때 제대에 놓는 제대초를 봉헌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가정에서 기도할 때 사용할 초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 모임 및 행사

모임단체	일시	장소
남녀 18구역 모임	1월 21일(일) 교중미사 후	교육관 205호
여성 1구역 모임	1월 23일(화) 14:00	교육관 201호
남녀 7구역 모임	1월 28일(일) 교중미사 후	교육관 203호
남성 3구역 모임		대성전 지하3회합실

□ 요셉회 신입회원 모집 및 1월 모임

- * 대상 : 60세 이상의 본당 남성 교우
- * 모임 : 1월 28일(일) 교중미사 후, 지하 4회합실
- * 문의 : 요셉회 임원(010-3285-7948)

□ 대림저금통을 봉헌해주세요

대림시기 동안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모으신 저금통을 미사 중 봉헌예절 때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깜빡 잊고 오신 분들은 사무실로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성금(誠金)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보내져 사회 복지시설과 사회취약층을 돕는 데에 사용됩니다.

□ 2024년도 교무금 책정

지난 2023년에도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가계생활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흑석동성당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교무금을 책정하시고 납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큰 성당이라서, 어느 한 분의 희사(喜捨)보다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십시일반(十匙一飯)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 2024년 혼인미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 사 시 간 / 상 사 인 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저녁 19:00 유치부·초등부 : 토요일 15: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10:00
주일 6:00 9:00 11:00(교중미사) 19:00(청년)						

사무실 ☎ 816-2961 매주 월요일 휴무	유이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00
팩 스 ☎ 817-5933	주모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10:00
주소 시흥특별시 동직구 흑석로13길 3(06910)	혼인면담 매월 둘째 토요일 16:00, 혼인 2개월 전 신청 요망(서류 접수)
	미사지향 희망 일자 전날 17:00 마감 /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성당 사무실로 전화신청(흑석동 교우 限)

● 우리들의 장상 (01. 08 ~ 01. 14)

연중 제2주일 헌금	7,278,010 원	감사헌금	김옥순	김형일
교 무 금	6,290,000 원		이리호	장한슬

금주 교무금 내신 분

강경화	김민철	김정현	나병국	안규호	이강수	이창영	전필원	진희원	황경임
곽은기	김선태	김종숙	동무환	안종열	이리호	이태석	정경미	최영성	황인규
구자필	김성근	김지수	박경자	안창윤	이미영	임정숙	정근창	최영재	
권일훈	김옥순	김지영	박상희	오재균	이상형	임정재	정순규	최용희	
권태희	김웅찬	김 철	서주원	오현석	이선정	장성우	정영근	최원철	
김경덕	김응수	김초월	손종기	왕현식	이종숙	장순옥	정원석	최은령	
김기동	김의수	김해정	신복식	유순례	이종화	장정학	정진용	최향규	
김미향	김임균	김현수	신애란	윤승연	이창봉	전부자	주성빈	홍효순	

□ 이리의 글은, 조재형 기브리엘 신부님(시흥대교구, 기쁨락평회신문 미주지시 담당)이 2020년 1월 3일(주님 공현 대축일 전 금요일)에 쓰신 묵상글입니다. 교우분들과 함께 이 글을 나누면서 우리 복식동상당 공동체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앞으로 3주에 걸쳐 연재합니다.

[개인 and 공동체의 딜레마 : 익숙함에 안주하고픈 마음]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와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리서였고, 교재였습니다. 제자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였습니다. 헬레니즘의 사상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건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업, 새로운 종교가 성장했던 첫 번째 요인 역시 ‘교육’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말씀이 중심에 있는 가정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샘이 깊은 물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권위는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힘과 업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헌신과 나눔에 있었습니다. 제자도, 이방인도, 세리도, 고아도, 과부도, 아픈 사람도 모두 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이런 평등의식은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섬기는 공동체는 시련의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